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and my God!
(요한복음 John 20:19-29)

어머니,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어머니 주일’ 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머니가 한국이나 다른 주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맡겨 드린 교우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더라도, 어머니 사랑에 감사하며, 인사 나누십시오.

“Happy Mother’s Day!”

This is ‘Mother’s Day Sunday’ to remember mother and her love with gratitude. Some of us have our mothers in Korea or in a distant state. There are some who already sent their mothers into God’s arms. Even if our mother may not be with us, let us be thankful for mother’s love and exchange our greetings.

“Happy Mother’s Day!”

지난 주 어버이 날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꽃다발을 보내 드렸습니다. 짧은 한 문장을 카드에 적었습니다. ‘늘 받기만 했던 크신 사랑, 카네이션에 담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늘 우리를 푸근하고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은 언제나 그리운 고향 집입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님에게 사랑을 전해주세요.

Last week on the Parents’ Day, I sent a bouquet of flowers to my parents in Korea. Wrote a short sentence on card - the great love I’ve always received only, is enclosed in the carnations with a grateful heart. The word, mom, always brings us comforting and warm embrace. Whenever we think about mother, our hearts are already at our home we miss. When you go home today, show your mother, wife, and daughter your warm love.

한 방송사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해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우리네 보통 엄마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전화만 드린 탓인지, 깜짝 놀라며 대뜸 이렇게 되물습니다. ‘야, 너 무슨 일 있냐? 별일 없는 거지.’ ‘어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해 드릴 어머니를 이미 떠나 보내신 분도 지금 마음 속으로 ‘사랑해 엄마’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려 보십시오.

An employee from a broadcasting company called his/her mother at work and confessed, ‘I love you’. On the other side of the phone, the mother’s response is interesting. Because it was unlike calls the mother is used to receive, the mother was alarmed and asked right away, ‘Is everything okay? Hope all is well.’ Even those who sent away their mothers they confess, ‘mother I love you’, let us send our mothers respect and thanks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부활의 증인들, 연속 설교 세번째 입니다. 텅 빈 무덤을 버선발로 달려갔던 마리아, 답답한 심정으로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 오늘은 도마와 다른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마리아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깊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의 심리묘사로 시작됩니다.

This is the third week in the witnesses of the resurrection sermon series. Mary who ran to the empty tomb in bare feet and the two disciples on the way to Emmaus. Today is the story of the Lord who came to Thomas and other disciples. Ever after listening to Mary's live testimony of 'seeing the resurrected Lord with her two eyes', the disciples are still in doubt and deep fear. Today's scripture passage starts with a description of how the disciples felt.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요한복음 20:19a)

The disciples were together,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ish leaders (John 20:19a)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자들. 다시 사신 주님을 마음 속에 모시지 못한 채 그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처형 당할 것이 무서워 떨며, 예수를 못박은 자들의 광기가 좀 수그러들기만을 숨죽여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들의 두려움은 막연한 공포로 변질됩니다. 무서움의 부피는 더 커지고, 두려움의 무게는 더 증폭됩니다. 처음은 유대인에 대한 무서움이지만, 지금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두려움에 휩싸이면,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급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의 두꺼운 커튼으로 다사로운 햇살도 완전히 차단합니다. 더이상 사실에 근거하거나 뿌리내리지 않고, 제멋대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 나가지요.

Despite hearing 'the news of the resurrection', the disciples who couldn't participate in 'the joy of the resurrection' couldn't invite the risen Lord into their hearts and were surrounded by fear. Fear of being executed for just being the disciples of Jesus, they were trembling and quietly waiting for the insanity of those who crucified Jesus to calm down. The disciples' fear, however, evolved into unknown horror as time passed. The size of fear increased and the weight of horror is even more amplified. At first it was the fear of Jews but now they are not even sure what they are fearful of. Once overwhelmed by fear, their hearts are firmly locked up from inside. The thick curtain of prejudice and fixated thinking cuts off the warm sunlight completely. It is no longer based upon or rooted in facts and instead takes off on the wings of imagination with no bound.

그래요, 두려움은 '확성기 스피커'입니다. 작은 두려움이 마음 속에 밀려오면, 백 배 천 배나 되는 두려움을 양산해 냅니다. 주님은 제자들 머리 속에, 가슴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정체를 꿰뚫어 보십니다. 두려움은 잠시 숨겨둔다고, 또 멀리 몰아낸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어두운 골방에서 아무리 어둠을 이리저리 밀쳐내도 결코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을 단번에 쫓아내는 방법은 단 하나,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지요. 때문에 주님은 '두려움의 극복'이 아니라 '평안의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Indeed, fear is the 'loud speaker'. Once a wave of fear rushes into your heart, it produces 100 or 1,000 times of fear. The Lord sees through the identity of this fear in the head and heart of the disciples. Fear does not go away when we try to hide it temporarily or drive it far away. No matter how hard we try to push darkness away into a dark corner room, darkness never disappears. The only way to drive darkness away instantly is to shine a bright light. Hence the Lord approaches us, not as 'overcoming of fear' but as 'the light of peace'.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v.19b, 개역개정)

"Peace be with you!" (verse 19b)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두려움의 볼모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두려움의 감옥 밑바닥에 자신을 던져 놓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맘 속에 다시 찾아 오셔야 됩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우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온 몸에 힘주지 마세요. 두려움의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힘 다 빼고, 평안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shalom. Peace be with you.” 이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겁니다.

It's been said that the fear we have to watch out is fear itself. How often have we actually live as hostages of fear? Haven't we thrown ourselves onto the prison floor of fear? We need the risen Lord! The Lord must come into my heart again! Don't tense up your whole body trembling to fight against fear. What we ought to do in times of fear is to let ourselves go loose and greet the Lord of peace. We should hold onto the hands of the Lord inviting us into peace.

“Shalom, Peace be with you.” When the disciples listened to this, they would have remembered the promise of the Lord.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개역개정)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John 14:27)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요한복음 16:33b) 말씀도 떠올렸을 겁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굳게 걸어 닫았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얼굴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제서야 주님인 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They probably recalled His word,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John 16:33b) Finally the disciples open wide the door of their hearts that were solidly locked up. With the door of their hearts open, their face changed. They the rejoice, recognizing the Lord.

진정한 평안은 두려움의 늪에서 빠져나올 때 시작됩니다.

공포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록 더 깊은 두려움에 잠식 당하게 되지요. 홀로, 혼자만 느끼는 적막은 평안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한자로 사람 인(人)자는 서로 받쳐주고 세워주는 모습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손길은 세상의 손길과 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True peace begins when we escape from the swamp of fear.

The more we gasp in the swamp of fear, the deeper we will sink into fear. The darkness we feel alone is loneliness and not peace. The Chinese character (人) for human being depicts human's mutual support. It is holding out the hand of fervent love and seizing on to that hand. The hand that our Lord extends to us is not like the hand of the world. It is the hand of love of the cross to save you and me. That very Lord came to visit His disciples first. Then he breathed into his disciples the breath of life and said,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22b)

Receive the Holy Spirit. (John 20:22b)

물론 이 말씀은 고별 설교의 약속, 선물로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구약의 두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먼저 창세기 2:7 말씀입니다.

Of course, these words conveyed the Holy Spirit of Comforter, which was a promise and gift of the Lord's farewell sermon. This scene also reminds us of the two verses of the Old Testament. First are the words of Genesis 2:7.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Then the LORD God formed a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진흙 덩어리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욕망의 전차’에 올라 타서 ‘두려움의 증폭기’를 울리며 살아갑니다. 공포에 질식 당한 인간은 ‘두려움의 날숨’만 내뿜을 뿐 ‘평안의 들숨’을 마시지 못해요. 성령의 숨결을 생각하며, 제 머리 속에 떠오른 두번째 구절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Human being, a mere clump of mud received life because of God's breathing of life into humans. However, humans climb on the "tram of desire" and live by "amplifying fear". Humans who have been suffocated by fear can only "exhale the fear" and cannot drink the "breath of peace". The second verse that comes to my mind, when thinking of the breath of the Holy Spirit, is the words of Ezekiel.

**너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을 살어나게 하여라. (에스겔서 37:9b)**

Come, breath from the four winds and breathe into these slain, that they may live. (Ezekiel 37:9b)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딱딱한 마른 뼈가 돼버린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 주십니다. 창세기가 처음 창조라면, 에스겔서는 새(재)창조의 순간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두 개의 창조가 모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서두는 처음 창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5)

He revives our soul that have already become a hard, dry bone, though it may seem alive. If Genesis is the first creation, then the Ezekiel is the moment of re-creation. Now, there are two creations appearing in John's Gospel. The beginning of Gospel of John records the first creation as follows: (John 1: 1-5)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모든 것이 말씀 (하나님) 으로 창조됐다 (생명을 얻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In him was life,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all mankind.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5)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John 1:5)

이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 20 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창조’의 예고편 같습니다. 두려움에 함몰 당한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성령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며, 죽은 심령을 새롭게 빚어 주십니다. 살롬, 평안의 방문은 새 창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명을 의미합니다.

This sounds like a trailer of "New Creation" in John 20, the text of today. The Lord who came to the hearts of the disciples who were engulfed in fear with the light of peace. He breathes the Holy Spirit, and he revives a dead spirit. Shalom, the visit of peace means new creation, new beginning, and new mission

지난 주 오랫동안 정들었던 웨슬리 홀이 허물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귀한 사역을 해왔던 Epiphany UMC 도 곧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을 받아라’ ‘새로운 창조를 열망하라’ 는 말씀이 귓전에 울려 퍼집니다. 와싱턴인교회는 지금 중요한 변화의 자리에 서있습니다.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새롭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웨슬리 홀을 통해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Epiphany 건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열망을 함께 사모하십니다.

The Wesley Hall, which we had long been attached, was taken down last week. Epiphany UMC, which has been doing precious ministry for decades, will soon disappear into the backdrop of history.

The words "Receive the Holy Spirit" and "Eager for a new creation" resonate in our ears. The KUMC is now poised for a major change. It is not merely to continue the status quo, but to take up a new mission. Through the Wesley Hall and the Epiphany building that has been granted to us, we are eager for a new vision and purpose granted by God.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에피소드로 연결돼 있습니다. 두번째 이야기에는 ‘도마의 불신앙’이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도마처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미문화권에서 ‘Doubting Thomas’는 의심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저는 오늘 도마의 입장에서 반론을 펼쳐 보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주님이 나 혼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Today's text is linked to two episodes. The second episode is entitled "Disbelief of Thomas". I wonder if there are any other characters in the Bible who are just as unfairly treated as Thomas.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Doubting Thomas" refers to those with many doubts. I am going to open a counter argument today from Thomas' point of view. Of all the time, the Lord came to the disciples, when I was not around.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못자국에, 옆구리에 넣어봐야만 믿겠소.’

내 맘 속을 훤히 꿰뚫어 보면서도, 나만 속 빼버린 채 다른 제자들에게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십시오. (요한 20:20) 다른 제자들도 나와 똑같은 마음인데 나만 의심쟁이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억울한 게 있습니다. 제대로 된 표제는 ‘도마, 나의 불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주인공이 아니고 한량없는 은혜로 다가오신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인간적 의심, 회의, 불신앙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에 초점에 맞춰져야 됩니다. 제자들의 생동감 넘치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도마. 주님은 바로 이 도마 한 명을 친히 만나 주시기 위해 두번째로 방문해 주십니다. 여드레 뒤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방문은 도마를 위한 것입니다.

“Only when I can see with my own eyes, touch the nails with my h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then I will believe.”

While He could look through my heart, He showed His hands and wounded side only to the other disciples, excluding only me. (John 20:20). Other disciples were equally doubting, but I am alone portrayed as the doubter. There is something fundamentally unfair. The proper theme should not have been "Thomas, my unbeliever", but "Love of the Lord" who came to me first in spite of my disbelief. The main character should not have been the doubting Thomas, but the Lord, who was coming to us with unlimited grace. The focus should have been on the faithful Lord's love, not on human doubt, mistrust, and disbelief. The Lord would visit them for the second time to meet this very Thomas who refuses to believe despite the convincing testimony of other disciples. A dramatic visit after 8 days was for Thomas only.

…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요한복음 20:27)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John 20:27)

“도마에게 말씀하셨다”를 메세지 성경은 도마를 좀 더 부각시켜 번역 했습니다.

Then he focused his attention on Thomas. (John 20:27a, The Message)

주님의 두번째 방문의 핵심은 도마에게 집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라. 주님은 단 한 명의 제자 도마를 위해 철저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새번역은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라’라고 번역했지만,개역 개정이 원문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With “He said to Thomas”, the Message Bible translated Thomas with more emphasis on him.

Then he focused his attention on Thomas. (John 20: 27a, The Message)

The focus of the Lord's second visit was for Thomas only. If you like, put your hand on the nail mark and the side. The Lord reveals everything so completely for a single disciple, Thomas. The new version translates: "Abandon suspicion and have faith", but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is closer to the original text.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apistos)가 되지 말고 믿는 자(pistos)가 되라!

So, do not become apistos not pistos!

‘믿음 없는 자’는 ‘의심하는 자’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시간과 공간에 우연히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아예 믿지 않기로 굳게 마음 문을 닫은 거죠. 도마의 **조건적 신앙** (Unless I see... I will never believe.) ‘의심’이 아니라 **‘믿음 없음’** 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도마를 비웃지만 도마같은 ‘믿음 없음’의 자리에 서있습니다. 도마처럼 조건부 믿음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이뤄진다면...’ ‘한이 되고 원이 되는 기도 들어 주시면...’ 그러면 주님 믿어 드릴게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 없음 입니다.

‘Apistos’ 가 되지 말고 ‘Pistos’ 가 되십시오.

The meaning of “a faithless person” has a more comprehensive meaning than “a doubtful person.”

He did not believe Him because he was not there at the time and space when the LORD appeared and so he put up a door fast as a barrier for the resurrection of body was something not of common sense. Thomas' conditional love (Unless I see... I will never believe.) is faithlessness not doubt. Modern Christians stand in same position, a faithless position as Thomas even though we laugh at him. Like Thomas, we impose a conditional faith. ‘If the things that seem to be impossible come true...’ ‘If you listen to my prayer that is a lifelong regret and a great wish” then I will believe in you, the LORD.

The antonym of ‘faith’ is faithlessness not doubt.

Become ‘Pistos’ not ‘Apistos.’

성경에는 도마가 주님의 상처에 손을 넣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도마가 못자국/ 창자국을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라’** 는 주님의 명령이 도마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믿음 없음’에서 ‘믿음’으로의 여정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 호흡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심령에 오셔야만 가능한 새 역사입니다. 도마가 더이상 참을 수 없는 벽찬 감격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v.28)

There is no record in the Bible that tells Thomas put his finger into the LORD's wounds. Even though it was not recorded, Thomas could have touched the pierced marks of nail and spear. But it is clear that the LORD's command to become Pistos not Apistos is not out of a clear blue sky. It is not a process of remodeling that is the journey from 'faithlessness' to 'faithfulness.' It is a new creation. A new breath. It is only possible when the Holy Spirit comes to our mind. Thomas confessed with an overwhelming excitement.

My Lord and my God!" (v.28)

가장 짧지만, 가장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믿음 없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가장 확실한 선언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 하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새 생명, 새 비전, 새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도마의 고백에 주님은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v.29)

도마를 특별히 의심 많은 불신앙 덩어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 전의 도마는 평범한 크리스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눈 앞에서 직접 보고, 당신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도마 이야기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믿어야 되는, 또 때로는 믿음을 강요 당하는, 현대 교회를 위한 에피소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That was the shortest and clearest confession. Even though it was a minute, it was a clear declaration that moves from faithlessness to faithfulness. 'The LORD who is a master of my life. LORD, please forgive our faithlessness. My LORD and my God! Please allow me a new life, new vision, new faith. The LORD gave Thomas a promising word.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v.29)

Do not consider Thomas as a special faithless person. Thomas was an ordinary Christian before he met the LORD who came again. 'only with what people say, I cannot believe in you, LORD.' 'Unless I see you and touch your wounds, I cannot believe resurrection.' Thomas' story may be an episode for modern churches that should believe in the LORD even though they did not meet Him in person or sometimes are forced to believe in Him.

지난 주 신문지상을 통해서 몽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엄마, 제 노래 소리 들리세요'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을 그리워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이 지은 동시(제목: 가장 받고 싶은 상)를 소개해 드립니다.

I was deeply moved with an article of newspaper last week. The article was entitled to 'Mom in heaven, can you hear my singing?' I introduce a children's poem written by a 6th grader missing a meal table whose mom, died of cancer, prepared. (The title: the most wanted meal table)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Even though doing nothing/complaining with irritation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prepared without fail/naturally expected/ that sort of meal table
하루에 세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three times a day/available meal table/morning table, lunch table, dinner table...
그 때는 왜 몰랐을까? / 그 때는 왜 못 보았을까? / 주름진 엄마의 손을...
Why did I not know at that moment? /why did I not see at that moment? /a mom's wrinkled hand...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Mom, love you/ mom, thank you/ mom, rest in peace.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The most wanted meal table in the world/ mom's meal table/ unavailable any longer.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now to mom I/ prepare a meal table/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your favorite/ side dishes/preparing full...

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어머니 사랑' 일겁니다. 심지어 먼저 보내드린 어머니 사랑조차 우리 가슴 속 깊이 각인돼 있습니다. 도마 이야기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초대교회를 위한, 더 나아가 지금의 교회와 미래 교회를 위한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입니다. 믿음이 없을 땐 조건을 들먹이며 주님의 사랑을 제한하지만, 믿음에 철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밥상'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한없이 고마워집니다. Even though we don't see or cannot touch it, 'love of mother' is unchanging. Even a love of mother who passed away, deeply marks into our heart. Thomas' story is a great epic of love for the early churches that did not meet the LORD, furthermore the modern churches and future churches. When there is no faith, we limit the LORD's love with conditions but we prepare a meal table for the LORD and not for me is when we are getting mature. We begin to be thankful for the LORD'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사랑하는 와싱턴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마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기 보다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멋진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 드리십시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My dear KUMC congregation, please listen to the LORD's word saying 'be faithful not faithless.' 'My LORD, my God!' let's lift up a wonderful confession of faith to the LORD. Be a main character of big faith that makes possible to believe even though we do not see. I bless you to have another week that win with faith.